

월북작가 문학사 수용의 현단계

괄목할 연구성과 축적...연구대상 확대, 새 민족문학사 서술이 과제

서준섭

강원대 교수·국문학

근대문학사의 공백부분 조별

작년 7월19일 월북·재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정부의 해금과 그에 뒤이은 금년초의 추가조치로 해금작가와 그들의 작품이 출판계와 일반 독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남·월북작가의 순수 학문적 연구의 상업적 출판은 사실 그보다 먼저 허용된 바 있다. 제작년 10월19일의 조치가 그것으로, 문학사의 공백부분에 대한 학술연구서 출판의 길을 열어놓은 이 조치에 대해 국문학계가 당시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근대문학사 복원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모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문학사 연구의 분위기 조성에는 큰 자극제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몇가지 유보조치의 문제점이라든가, 해금작품이 정부수립 이전의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문연구의 진전도 사회의 발전과 나란히 가는 것이라면, 이제 사회의 전반적 역량이 상당히 축적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사회발전이 부응하는 근대문학사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학계의 새로운 과제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제작년 10월조치가 근대문학사의 공백부분에 대한 연구의 침체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른바 남·월북 작가를 포함하는 문학사적 연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지속되어 왔다. 대학원에서의 연구, 학술전문지를 통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더러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경우도 있었다. 70년대 이후 몇몇 학자들에 의해 간행된 각종 문학사(일반문학사·장르사·문학사상사 등)가 그것인데, 그중에는 발매금지된 불운을 겪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몇몇 연구들이 이후의 연구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987년 10·19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출판된 연구서는 김학동의 「정치용연구」(1987)와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1987)가 아닌가 한다. 전자가 개별 시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면, 후자는 박영희·최서해·조명희·이기영·한설야 등의 소설에

학계의 근대문학 복원에 대한 관심이

리얼리즘 및 모더니즘 문학 연구와 함께

해방공간의 문학운동·문학론·

작품에 대한 연구로 확산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사를 써야할 만큼 연구성과가

양적·질적으로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로써 학계의 숙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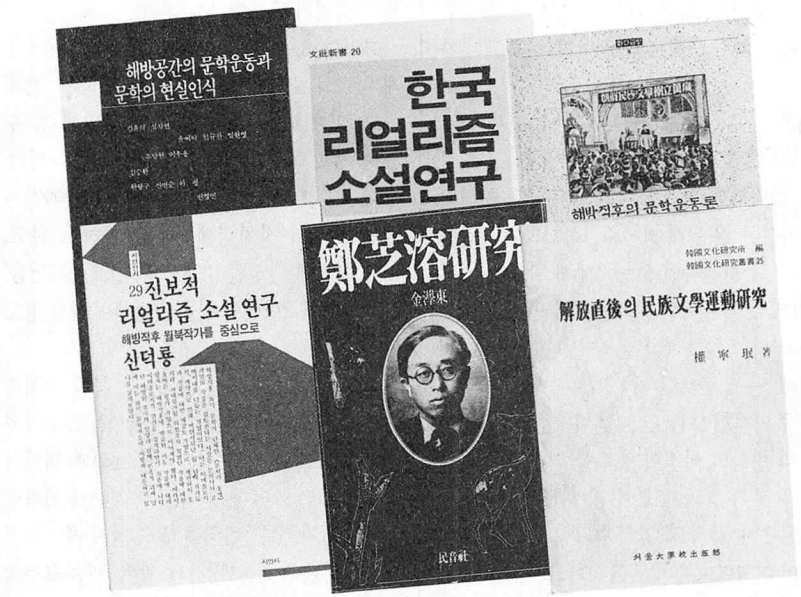
새 문학사 서술작업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모두 그 방면의 새 차원을 연 중요한 연구지만, 특히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는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온 1920~30년대 리얼리즘소설(경향소설·농민소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윤식교수를 위시한 정호웅·박태호·한형구·서경석·차원현 등의 한국문학사연구회 회원들의 6편의 논문을 수록한 이 책은 경향소설의 내적 형식과 그 변모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석하면서 거기에 리얼리즘이라는 미학적 개념을 부여하고 경향소설 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방면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기록된다.

리얼리즘·모더니즘 연구 활발

1988년에는 새로운 연구서가 속속 출간되는데, 이는 지체되었던 근대문학사 연구가 학계 공동의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임화·이기영·한설야·김남천·백석 등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시인)에 대한 11편의 개별 연구논문을 집대성한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87년 연구서의 속편), 1919년에서 45년에 이르는 근대문학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조동일의 「한국문학동사·5」, 애국계몽기에서 분단까지의 한국문학의 전개를 민족문학론의 시각에서 체계화한 권영민의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등의 본격연구서는 각 분야에 대한 논의를 크게 전진시킨 것이다. 권영민의 연구는 프로문학파와 민족문



학파를 모두 민족문학 속에 편입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서준섭의 「한국모더니즘문학연구」, 장사선의 「한국리얼리즘문학론」, 김명인의 「한국근대시의 구조연구」도 그 주제는 다르나 일종의 종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서준섭의 책은 김기림·이상·박태원·오장환 등 九人會 중심의 30년대 모더니즘 작가들의 이론·작품·리얼리즘—모더니즘 논쟁 등을 포괄하는, 모더니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로서, 모더니즘을 동시대 리얼리즘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근대문학은 반영론에 입각한 리얼리즘(카프)과 미적 가공기술의 혁신성·내면성·실험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구인회)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되었으나, 그동안의 연구가 리얼리즘쪽에 집중되어 모더니즘쪽 연구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불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부차적인 의의도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나온 김학동의 「김기림 연구」, 양왕용의 「정치용시연구」, 민중환의 「이태준연구」, 임형택·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 林巨正의 재조명」 등은 각 시인·소설가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시도한 것들이다. 해금작가에 대한 단행본 규모의 연구의 점증현상은 이전에 간행된 작가연구와 함께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양계열의 문학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이를 종합하는 연구

가 나왔다.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1989)이 그것이다. 한국문학사연구회의 세번째 논문집인 이 책은 근대문학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두 축으로 한 전개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근대문학사의 골격을 「민족주의 문학」과 「경향문학」의 대립적 전개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소재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주체적인 검증이 결여되고 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이다. 그런 연구태도는 또한 분단논리의 구조와 흡사한 것으로 분단문학사의 고정화라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근대문학사는 자체의 실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점, 즉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미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서는 두 축을 고려하여 문학사의 위상을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소설가·시인·평론가·극작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론을 의도하고 있다. 이복명·박태원·강경애·채만식·이상·권환·오장환·박세영·김두용·송영 등에 대한 15편의 연구논문을 실고 있는데, 그중에는 처음으로 논의되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 이로써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작가들에 대한 문학사적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근대성 문제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용어로 정식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셈이다. 그동안의 학위논문을 재정리하여 출판한, 이선영·김영민·최유찬·강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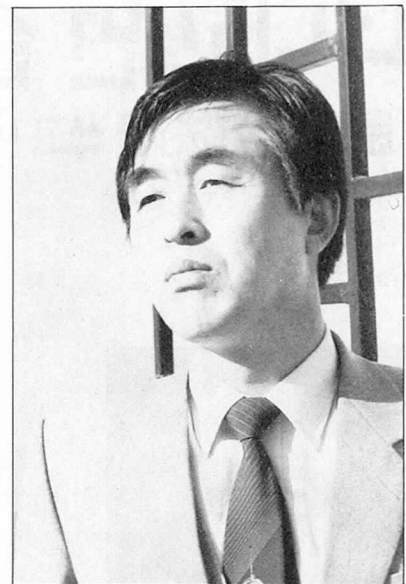
베트남 전쟁이 남긴 사랑과 비극

장편 「꿈을 짚는 印畫紙」

李在仁

소설가

나는 20대 중반에 베트남전쟁에 참가해 삶과 죽음,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비극을 체험했다. 오랜 시간을 여과한 끝에 40대 후반에야 붓을 잡은 셈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은 14부로 나누어진 대하소설이다. 오는 5월부터 연재하게 될 문예지에 그 1부가 지금 조판중이다. 제목은 「꿈을 짚는 印畫紙」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인간의 原型 회복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훼손시키는 국제적인 인류의 전쟁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비극의 서사시이다. 이 서사적인 무대는 베트남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와 미국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주인공은 물론 한국인 육군하사와 월남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이들 주인공들은 국가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뇌를 겪게 된다. 그들은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존엄성이나 자유의 열망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이들의 꿈과 열망을 짓밟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가인 필자로서는, “작가는 역사의 순리를 유도하는 길잡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집필에 임하고 있다.

나는 20대 중반에 베트남전쟁에 선발, 징병되어 그곳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미움, 이데올로기의 비극을 보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흥한 말로 말 갈데 소갈데 다 보고 느낀 셈이다. 그것을 30대 나이로 소화하기에는 연륜이 가당치 않아 우물거리다가 겨우 사십대 후반에야 붓을 잡은 셈이다.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여과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나는 이 문제의 로열박스를 열면서, 사랑은 때로 악마이며 불이며 천국이며 지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쾌락과 고통, 슬픔과 후회가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 제1부에서는 「전쟁과 사랑」을 통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 아픔을 추출해 보았다. 사랑은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위기에 가서는 반드시 화살과 전통(箭筒)을 날리는 폭군으로 둔갑되기도 하는 추상명사이다. 그래서 나는 작가로서 사랑을 찾아나서서 해결하고 부채질하는 중재자 노릇을 하기로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우리나라 소설은 외국의 소설에 비해 너무나 건조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소설가 자신이 해박한 철학과 체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상력만 갖고 주인공을 몰고 다니자니 자연 드라마인 소설로 굴러 떨어지게 마련이다. 나는 이번 「꿈을 짚는 인화지」를 쓰면서 참으로 많은 나날을 방황했다. 구도가 정확하지 않은 지도를 갖고 적의 CP를 뱀새로만 찾겠다는 탐험가처럼. 그러다가 우연히 오아시스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천사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그것이 베트남전쟁이 인류에게 가르쳐 준 커다란 교훈의 文學化, 文字化의 시작이었다.

나이가 사십이 훨씬 넘은 잔잔한 시각으로, 신선하고 예리한 필치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거기에는 부상당한 아가씨도 있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총각과 장사꾼으로 천박한 삶을 사는 노인의 일생도 있다. 그리고 꿈을 먹고 사랑을 회구하는 소녀의 아픈 연가도 있다. 아직은 말하기가 이르지만.....

네 사람의 공저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1989)도 근대문학 특히 30년대의 문학사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두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어, 이같은 문학사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접합

그런데 월북·재북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방면의 연구논문이 학술지 아닌 시중의 각종 문예지에 대량 게재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문학사적 만남의 한 소산이라 할 수 있는 이 방면의 논문 역시 문학사 공백극복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월간지·계간지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예지(종합지 포함)에서 특집을 기획, 연구자에게 지면을 제공했는데, 「문학사상」·「현대시학」·「세계의 문학」 등이 특히 여러편의 논문을 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재선·유민영·김재홍·정현기·오세영·이동하·신범순·서경석 등의 여러 연구가가 참여하여, 박팔양·박태원·안희남·박세영·최명익·권환·오장환·김창술 등의 문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는 주요 해금작가의 대부분이 망라된 것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인상적인 연구는 「문예중앙」지에 연재되고 있는 권영민의 장편논문 「카프의 조직과 해체」와 「한국문학」 「문학정신」 등에 지금도 연재중인 김윤식의 일련의 임화 연구이다. 조직·이념·활동 등에 걸친 카프의 전체적 성격과, 20년대에서 해방기에 이르는 임화의 모든 문학활동이 규명되는 이들 연구가 완결된다면, 근대문학사 연구도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역사비평」지에 게재된 신경향과 문학에 대한 서울대·연세대 대학원생의 합동 연구 논문, 同誌에 실린 카프 해소·비해소파 해석을 둘러싼 김재용·임규찬 간의 논쟁도 언급해 둘 만하다.

학계의 근대문학사 복원에 대한 관심이 해방공간의 문학운동·문학론·작품에 대한 연구로 확산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해방공간의 문학사연구는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권영민의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1986)가 나온 이후 신형기의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88), 임현영의 「한국현대문학사상사」('88),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론」('88), 김윤식 외 11인의 「해방공간의 문학운

동과 문학의 현실인식」('89), 신덕룡의 「진보적 리얼리즘 소설연구」('89) 등이 단행본 규모의 연구라면, 정과리·홍정선의 「한국현대문학사」(문예중앙)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이다. 「한국학보」 최근호에도 젊은 학자들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해방공간의 문학사 연구는 문학운동·문학론에 집중되어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다.

소장학자들의 공동연구 많은 것이 특징

지금까지 단행본을 중심으로, 그것도 필자가 접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그간 진행된 근대문학사 공백극복에 대한 연구성과를 개관해 보았거니와, 이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사를 써야 할 정도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축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연구가 많고, 몇몇 학자들의 연구업적과 소장학자들의 진출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 그동안 연구의 한 특성인 것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주요과제는 1)누락된 작가를 포함한 연구대상의 확대와 다양한 방법론의 도입, 2) 리얼리즘·모더니즘과 관련된 한국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3) 기존연구와 새로운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근대문학사를 쓰는 일 등이 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문학사를 새로 쓰는 것인데, 문제는 애국 계몽기에서 분단에 이르는 각 시기의 문학을 어떤 방법과 논리로 일관되게 서술하느냐 하는 방법론쪽에 놓여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특히 주목되는 것이 김윤식의 「한국민족주의와 근대문학」(「한국현대문학사론」 수록)이다. 이 논문은 한국근대문학사를 문학의 근대성과 여러 수준의 민족주의와 관련지어 체계화함으로써 새로운 민족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그 방법론적인 객관성·독창성·가능성이 돋보인다. 이로써 학계의 숙원인 새로운 문학사 서술작업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